

# 지역사회 아동권리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보고

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 아동들의 인식도 수준 측정

▣ 아동권리에 대한 통합적 시각 도출 및 아동권리 증진 방안 마련에 활용

## I 설문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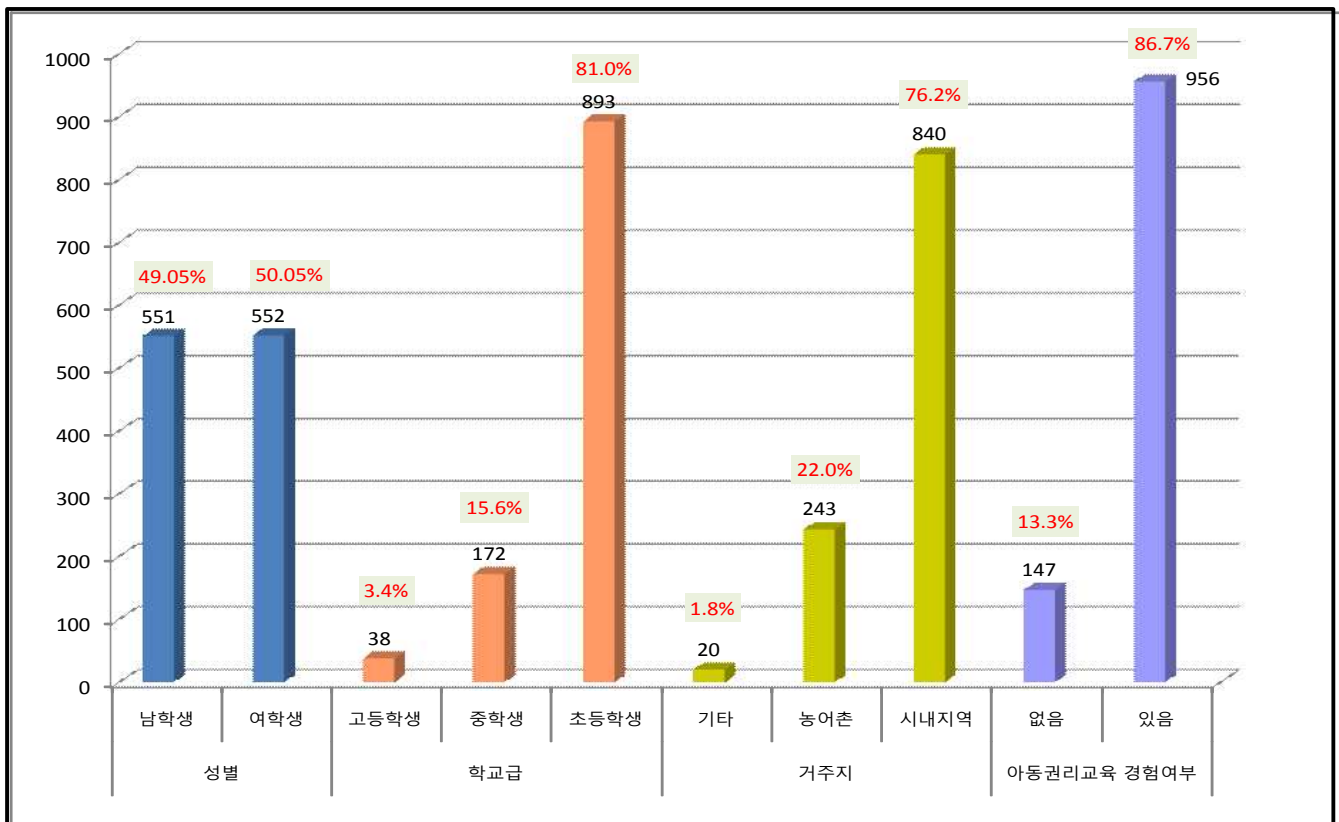
- 🌈 조사기간 : 2015. 8. 17. ~ 9. 11.
- 🌈 설문참여 : 만 18세 미만 아동 \*초등학교 3~6학년 ~ 고등학생 1,103명
- 🌈 설문방법 :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협조를 통한 설문조사
- 🌈 통계생성 : 2015. 9. 14. ~ 9. 30. \*지역경제과 경제통계계 협조
- 🌈 설문내용 \*국제아동인권센터의 2014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도구 활용


영역	설문조사 내용
생존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권리교육 경험 유무</li> <li>●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,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</li> <li>● 몸·마음이 건강할 권리, 놀 권리,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</li> </ul>
·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친부모와 함께 살수 없을 경우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</li> </ul>
보호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</li> <li>● 피부색·종교가 다르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</li> </ul>
·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</li> <li>●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존중받을 권리</li> </ul>
발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</li> <li>●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</li> </ul>
·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</li> <li>●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</li> </ul>
참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아동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</li> <li>● 신체적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</li> <li>● 입양시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이 존중받을 권리</li> </ul>

## II 설문 종합 분석결과

### 응답자 일반 특성

구 분		아동(명)	비율(%)	비 고
총 계		1,103		
성 별	남자	551	49.05%	
	여자	552	50.05%	
학교급	고등학교	38	3.4%	
	중학교	172	15.6%	
	초등학교	893	81.0%	
거주지	기타	20	1.8%	
	농어촌	243	22.0%	
	시내지역	840	76.2%	
아동권리교육 경험여부	없음	147	13.3%	
	있음	956	86.7%	




 아동권리교육 경험 유무에 있어 교육경험 있음의 비율이 높음

● 설문참여 1,103명 중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비율 86.7%(956명)

- ▶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우 전반적으로 아동권리인식도 또한 높음
  - 아동권리교육이 아동권리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볼수 있어 아동권리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

아동권리 유형		교육경험 있을 경우 아동권리인식도(%)	교육경험 없을 경우 아동권리인식도(%)
생존권	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	68.8%	40.1%
	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	81%	59.2%
	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	80.6%	61.9%
발달권	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	84.9%	67.3%
	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	76.3%	68.7%
	아동의 놀 권리	79.2%	68%
보호권	피부색종교가난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	84.5%	61.9%
	아동의 입장을 존중받을 권리	71%	64.6%
	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	86%	79.6%
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	86.3%	70.1%
	아동범죄자 보호에 대한 권리	52.9%	22.4%
	신체적·정신적 노동에 대한 권리	77.2%	52.4%
참여권	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	83.5%	72.1%
	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권리	72.4%	62.6%
	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	63.8%	63.9%
	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	86.2%	73.5%
<b>인식도 비율</b>		<b>77.16%</b>	<b>61.77%</b>

 아동권리 교육여부와 상관없이 응답자 전체 75%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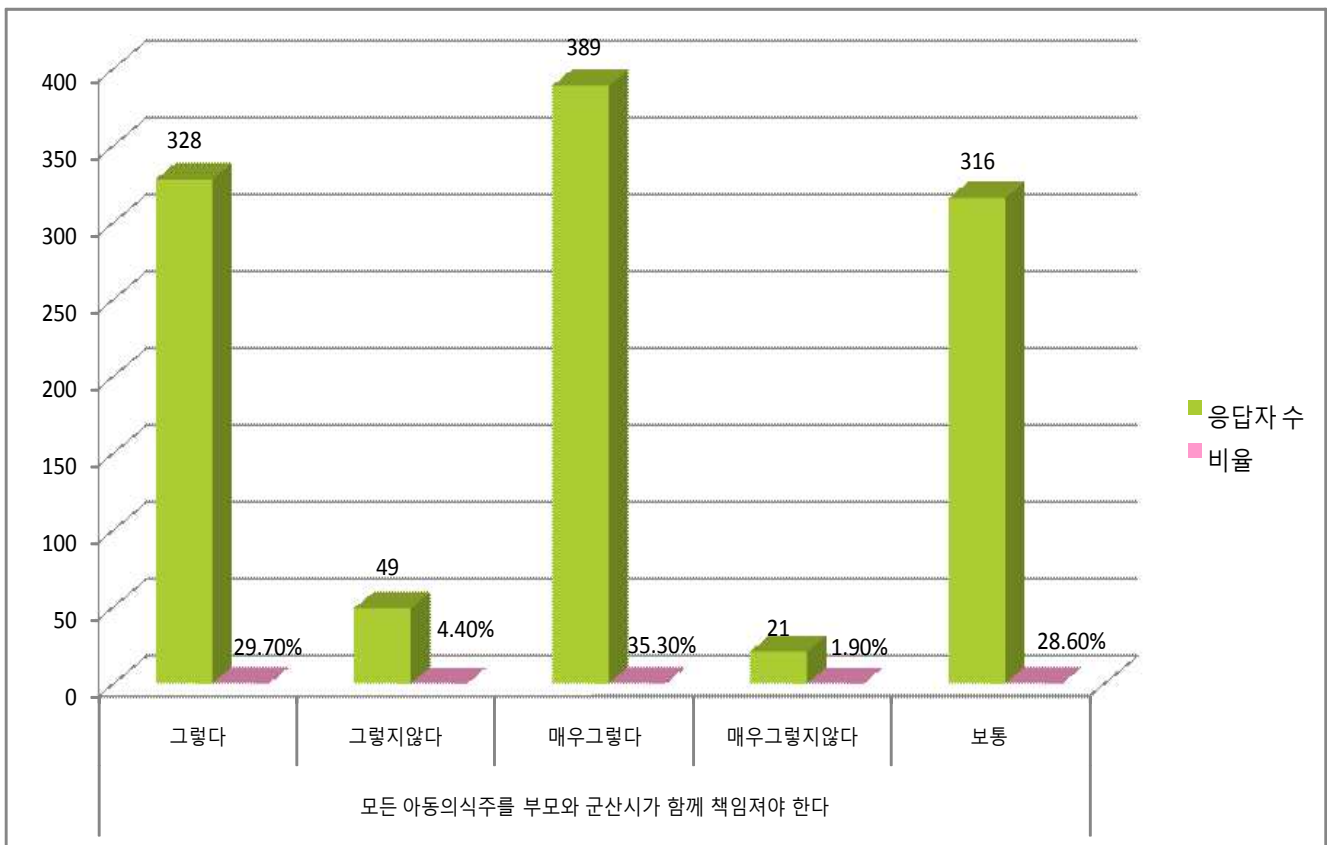
아동권리 유형		아동권리인식도(%)
생존권	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	65%
	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	78%
	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	78.1%
발달권	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	82.6%
	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	75.3%
	아동의 놀 권리	77.7%
보호권	피부색종교가난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	81.5%
	아동의 입장을 존중받을 권리	70.2%
	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	85.2%
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	84.1%
	아동범죄자 보호에 대한 권리	40.3%
	신체적·정신적 노동에 대한 권리	73.9%
참여권	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	81.9%
	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권리	71.1%
	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	63.8%
	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	84.5%
<b>인식도 비율</b>		<b>75%</b>

## 생존권에 대한 인식

### ●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717명(65%)의 아동이 '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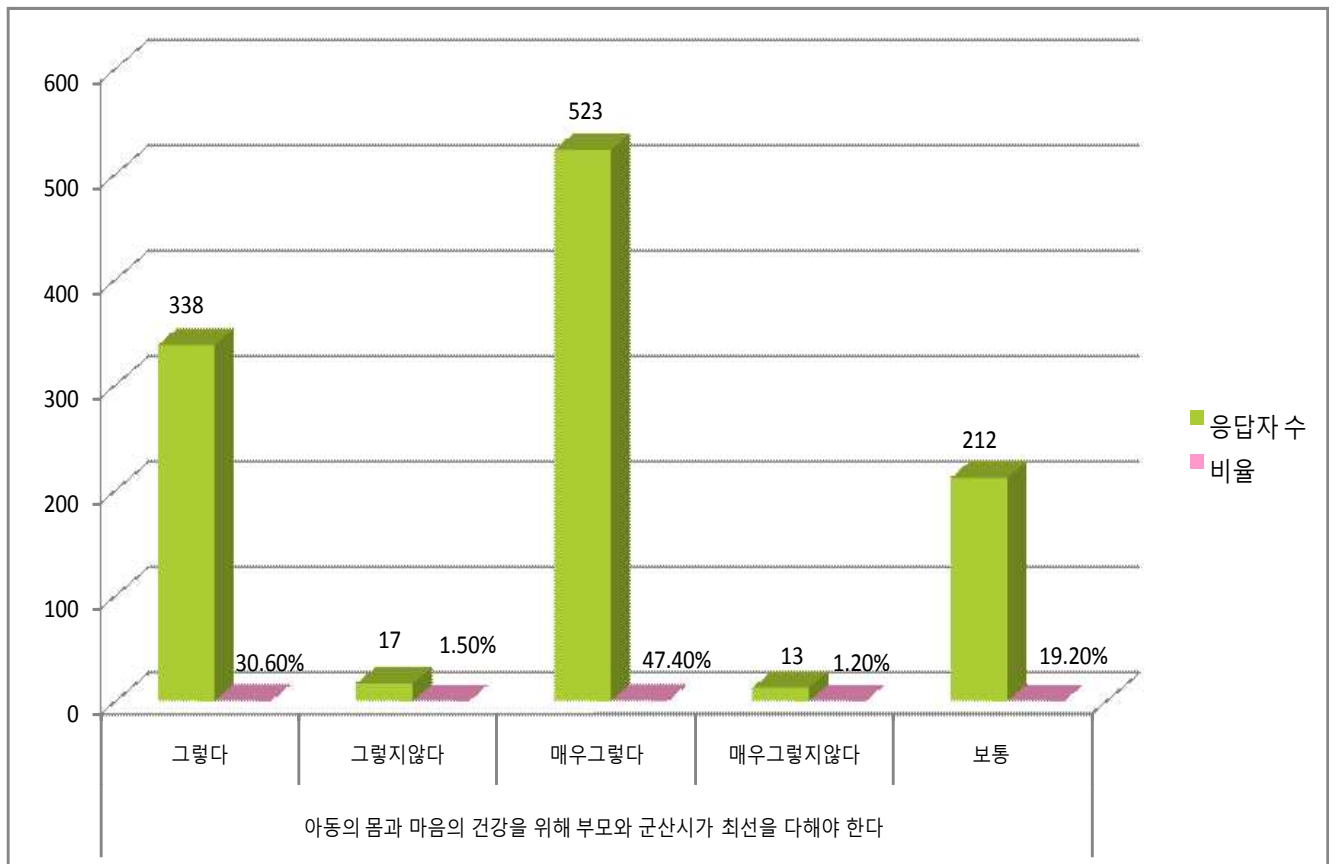
구 분	모든 아동의식주를 부모와 군산시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28	49	389	21	316	1,103
(명, %)	29.7%	4.4%	35.3%	1.9%	28.6%	100.0%



## ●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61명(78%)의 아동이 '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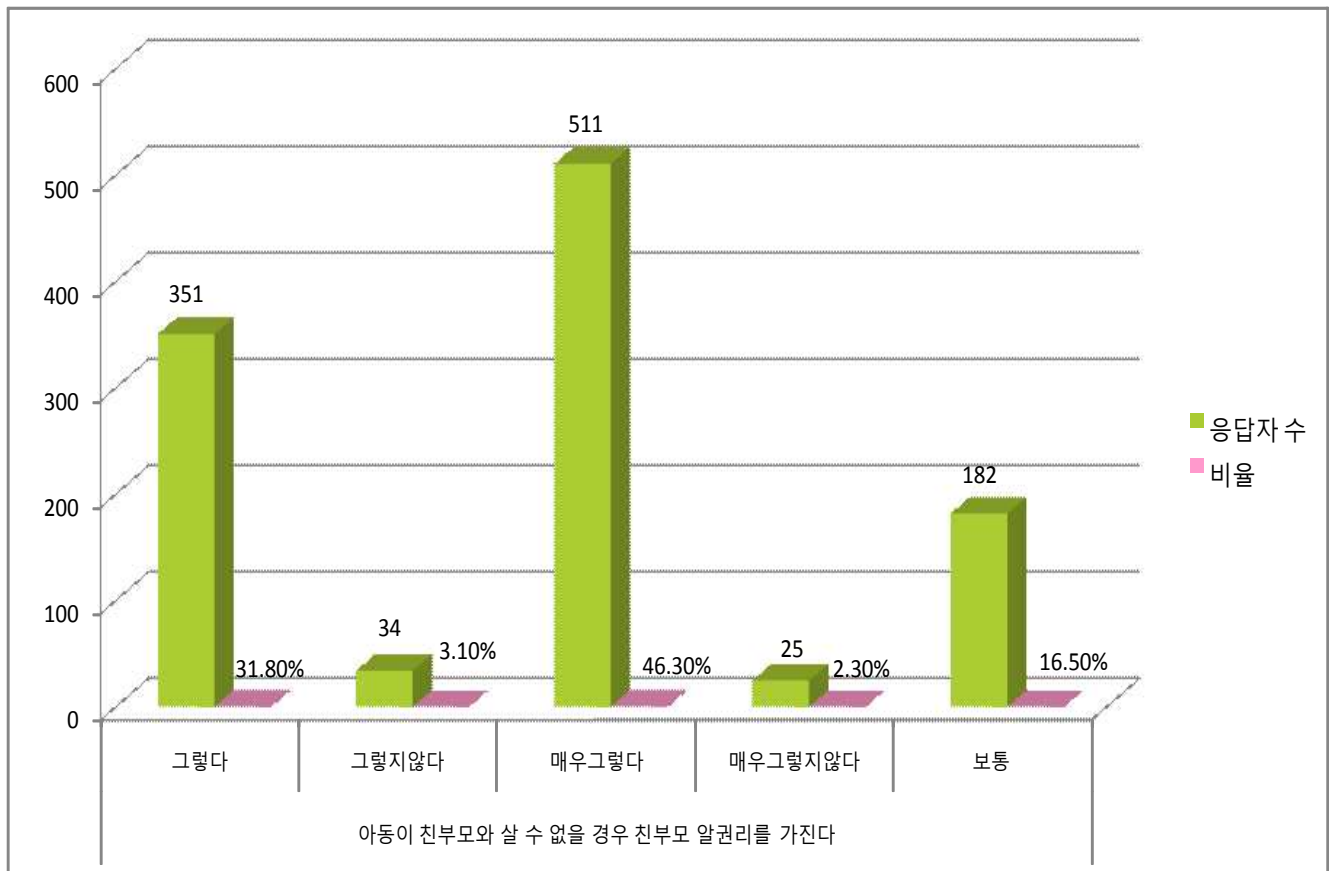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부모·군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					전 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38	17	523	13	212	1,103
(명, %)	30.6%	1.5%	47.4%	1.2%	19.2%	100.0%



## ●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62명(78.1%)의 아동이 '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아동이 친부모와 살 수 없을 경우 친부모 알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51	34	511	25	182	1,103
(명, %)	31.8%	3.1%	46.3%	2.3%	16.5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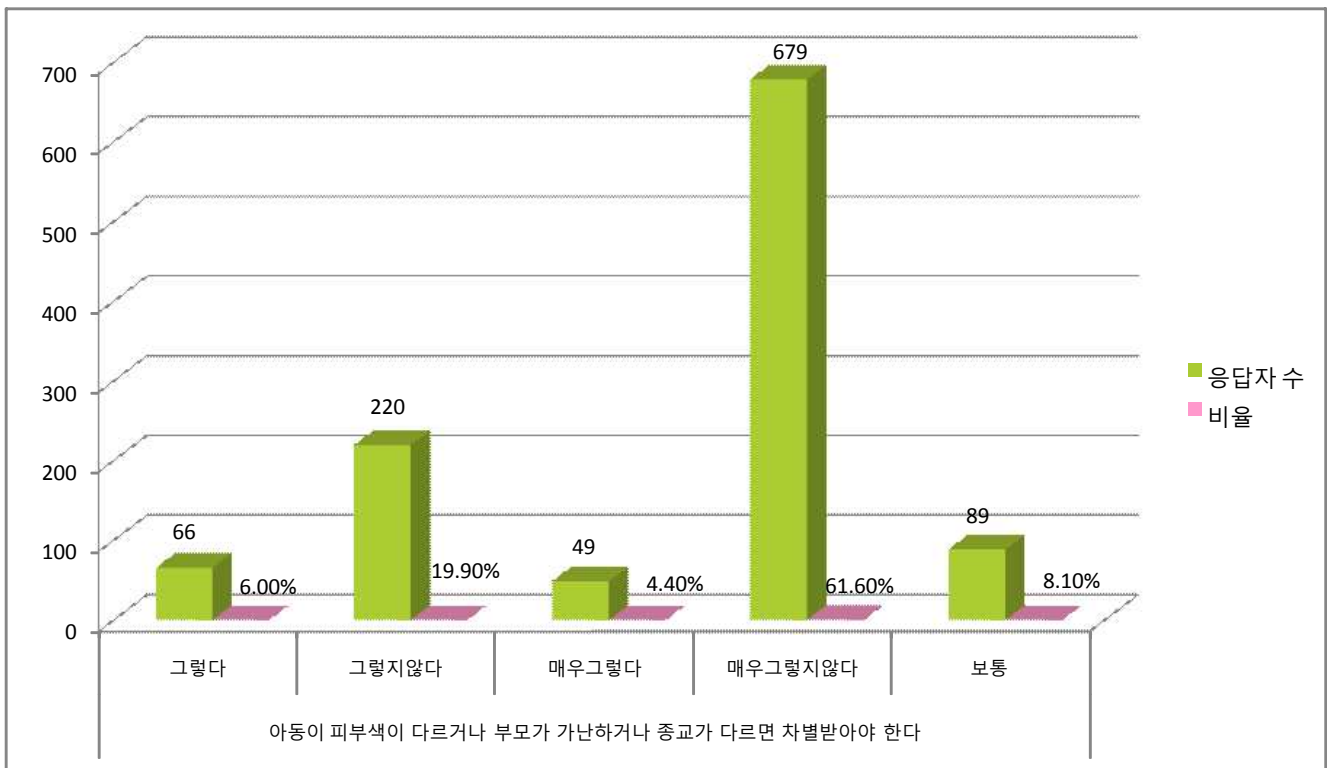


## 보호권에 대한 인식

### ● 피부색·종교·가난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99명(81.5%)의 아동이 '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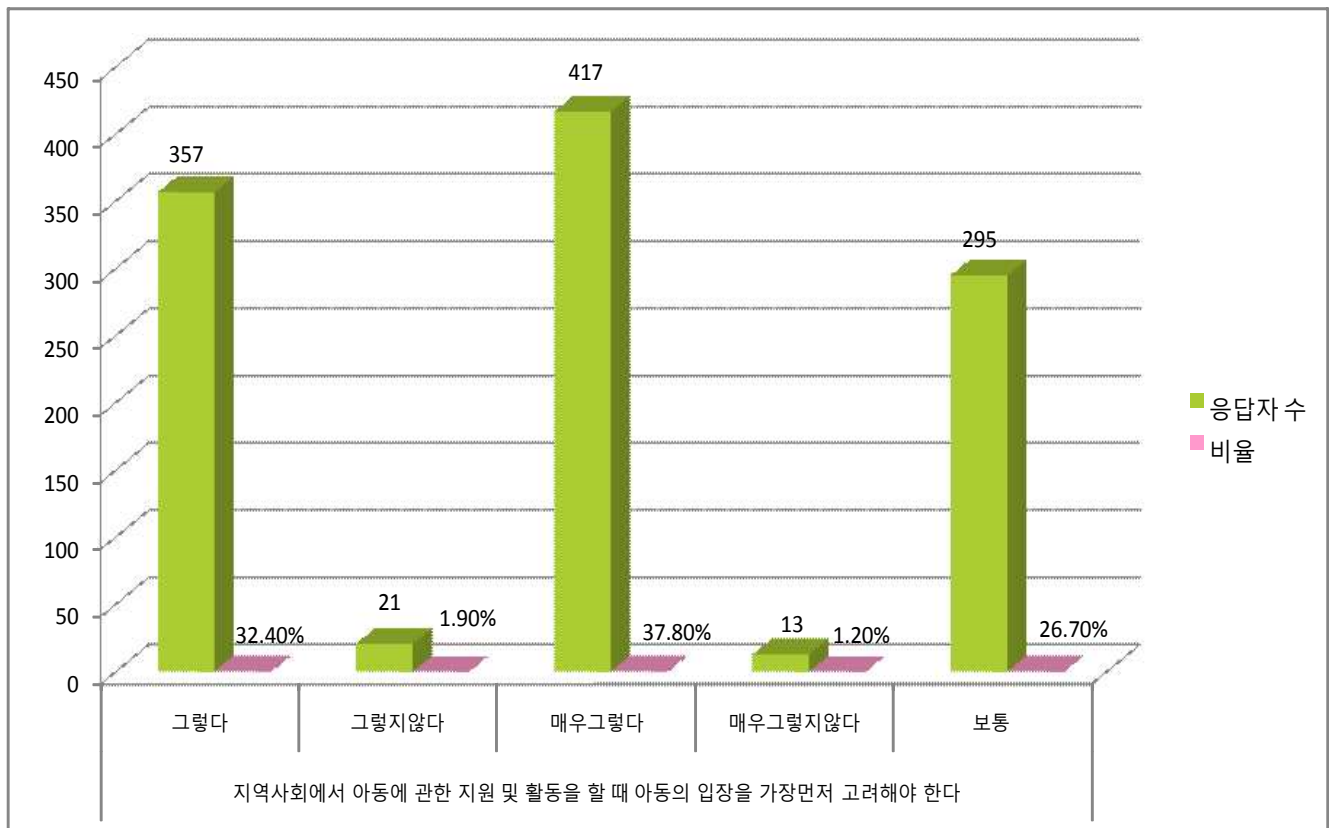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종교가 다르다면 차별받아야 한다					전 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66	220	49	679	89	1,103
(명, %)	6.0%	19.9%	4.4%	61.6%	8.1%	100.0%



## ● 아동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존중받을 권리

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774명(70.2%)의 아동이 '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지역사회에서 아동에 관한 지원 및 활동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을 가장먼저 고려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57	21	417	13	295	1,103
(명, %)	32.4%	1.9%	37.8%	1.2%	26.7%	100.0%



## ●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939명(85.2%)의 아동이 '아동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'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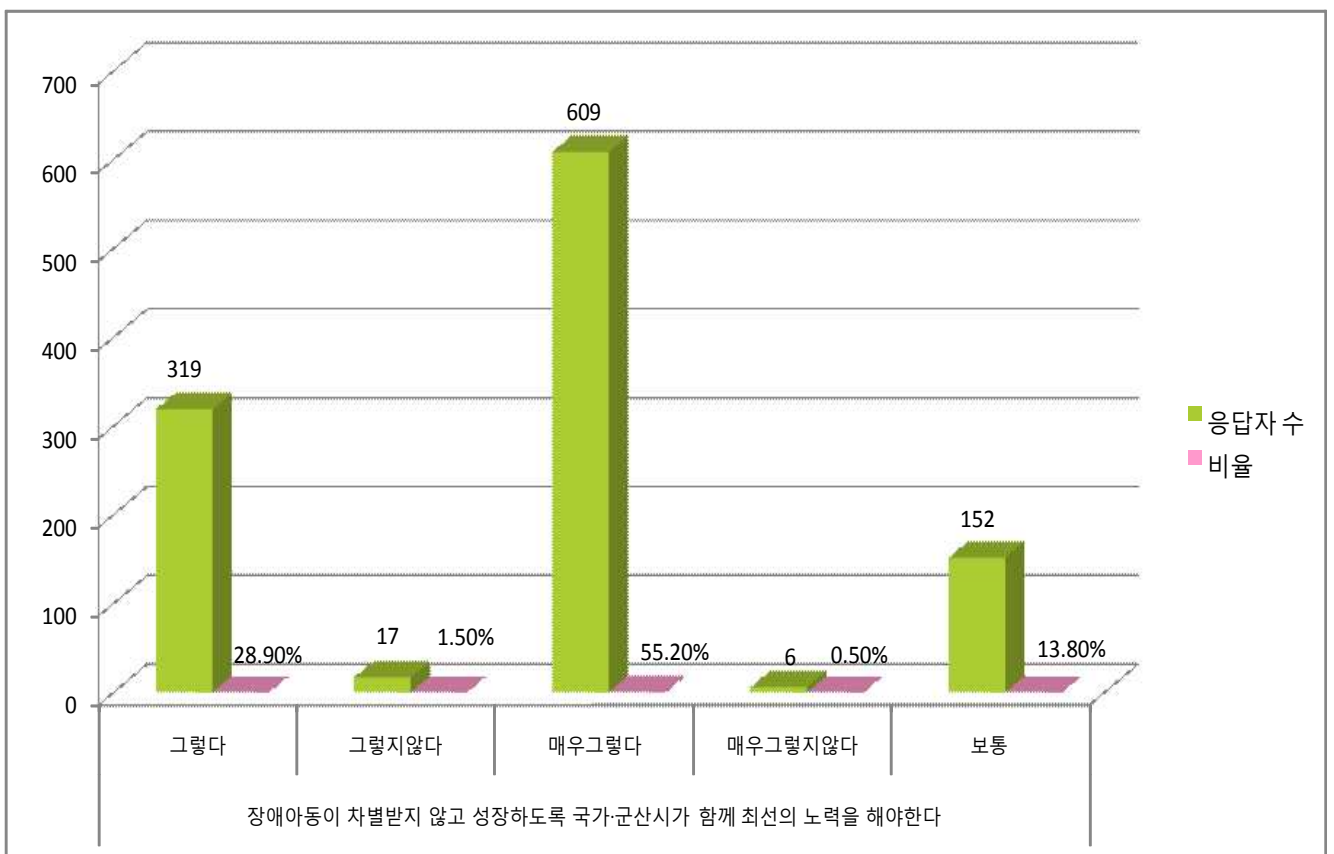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은 신체·정신적 폭력, 학대를 받아서는 안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238	26	701	23	115	1,103
(명, %)	21.6%	2.4%	63.6%	2.1%	10.4%	100.0%



## ●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928명(84.1%)의 아동이 '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'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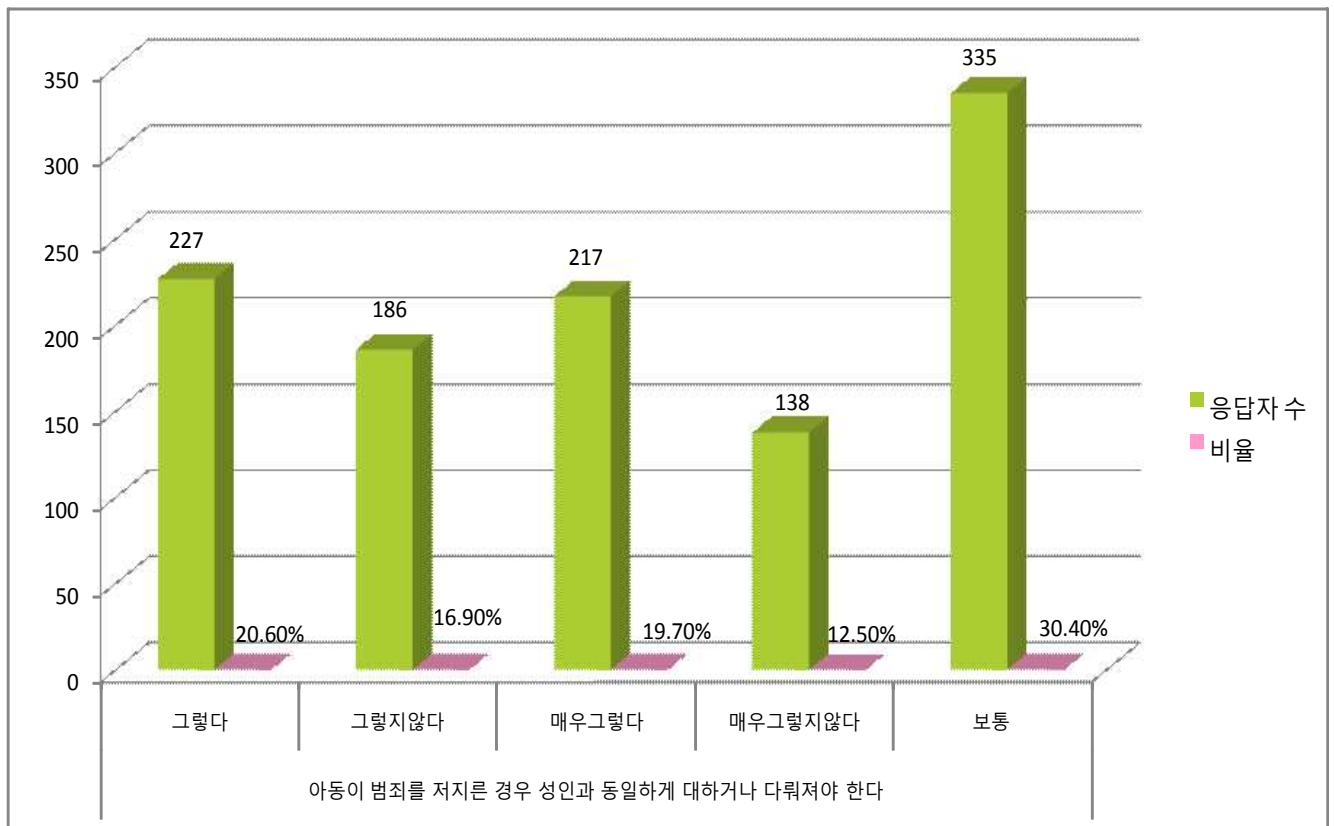
구 분	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도록 국가·군산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19	17	609	6	152	1,103
(명, %)	28.9%	1.5%	55.2%	0.5%	13.8%	100.0%



## ● 아동범죄자 보호에 대한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444명(40.3%)의 아동이 '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'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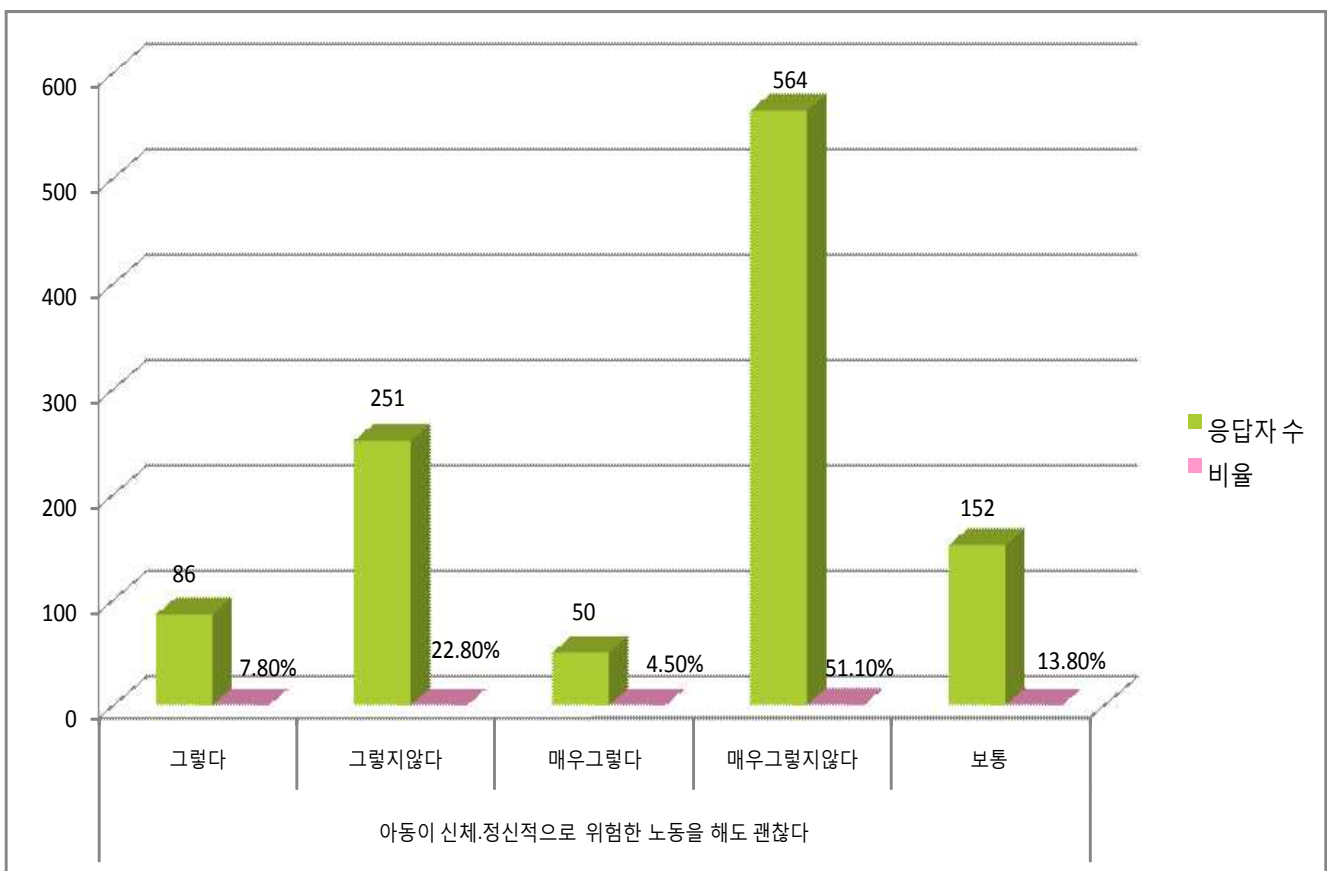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대하거나 다뤄져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227	186	217	138	335	1103
(명, %)	20.6%	16.9%	19.7%	12.5%	30.4%	100.0%



## ● 신체적·정신적 노동에 대한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15명(73.9%)의 아동이 '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지 않다'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아동이 신체·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해도 괜찮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 (명, %)	86	251	50	564	152	1103
	7.8%	22.8%	4.5%	51.1%	13.8%	10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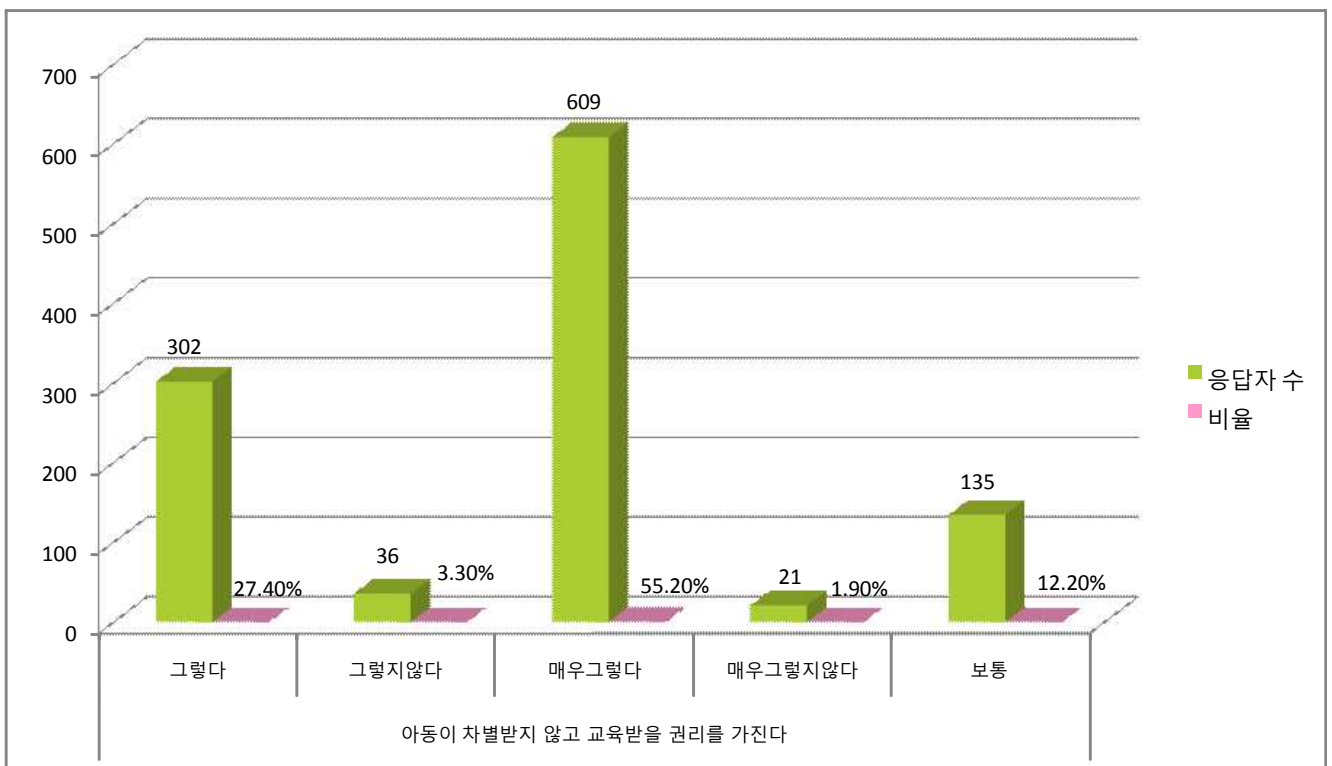


## 발달권에 대한 인식

###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911명(82.6%)의 아동이 '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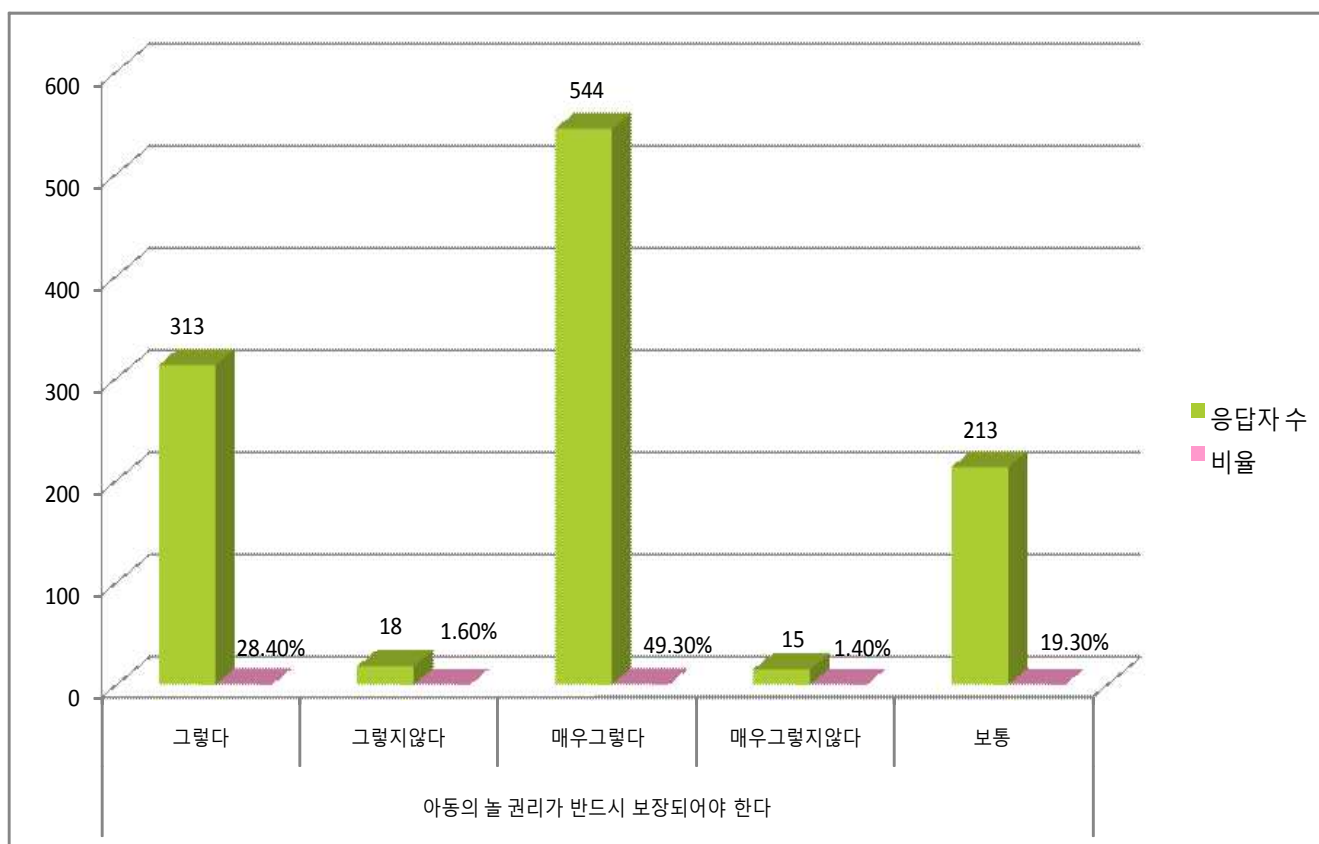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					전 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02	36	609	21	135	1,103
(명, %)	27.4%	3.3%	55.2%	1.9%	12.2%	100.0%



## ● 아동의 놀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57명(77.7%)의 아동이 '아동의 놀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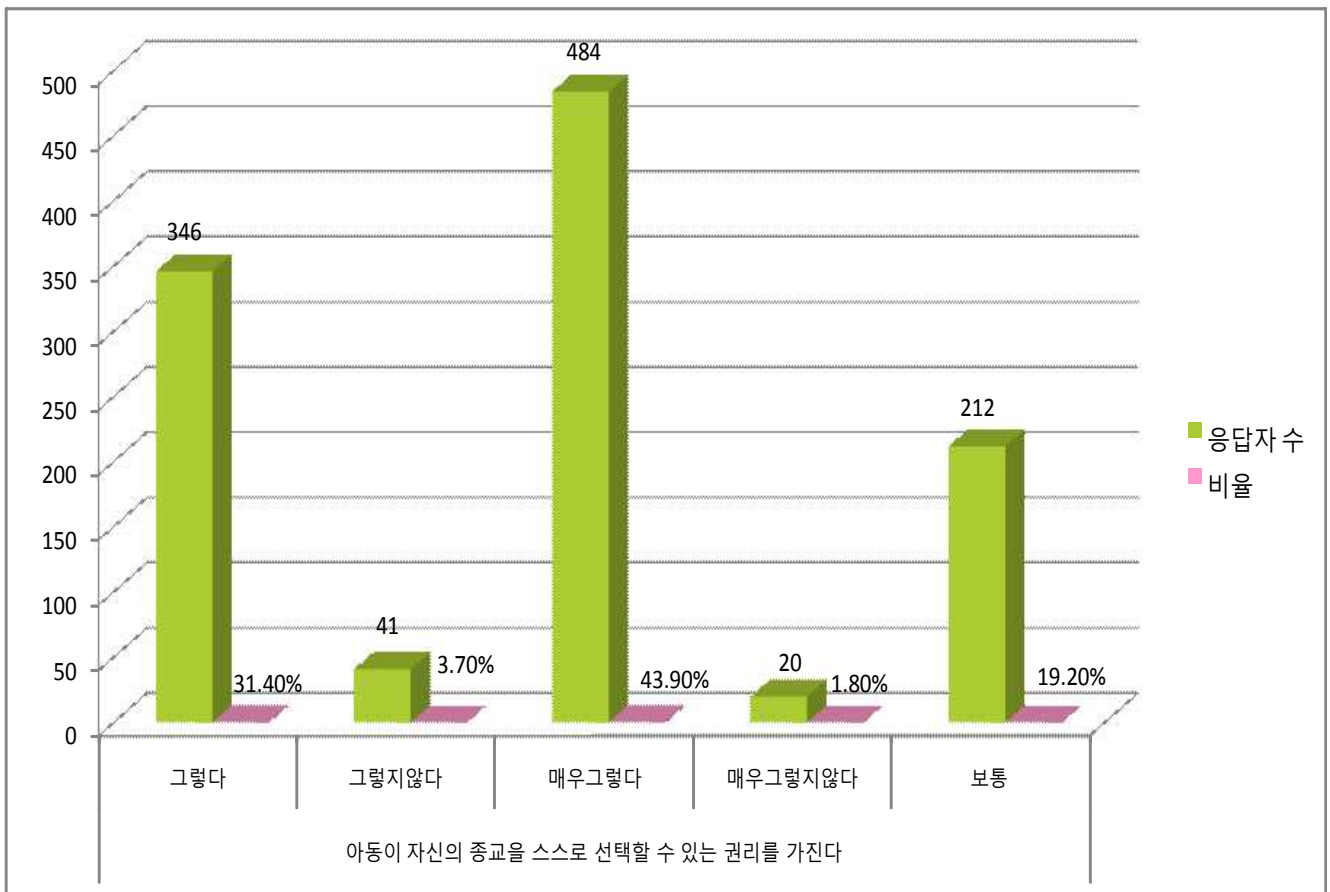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의 놀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 (명, %)	313	18	544	15	213	1,103
	28.4%	1.6%	49.3%	1.4%	19.3%	100.0%



## ●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830명(75.3%)의 아동이 '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46	41	484	20	212	1103
(명, %)	31.4%	3.7%	43.9%	1.8%	19.2%	100.0%



## 참여권에 대한 인식

###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932명(84.5%)의 아동이 '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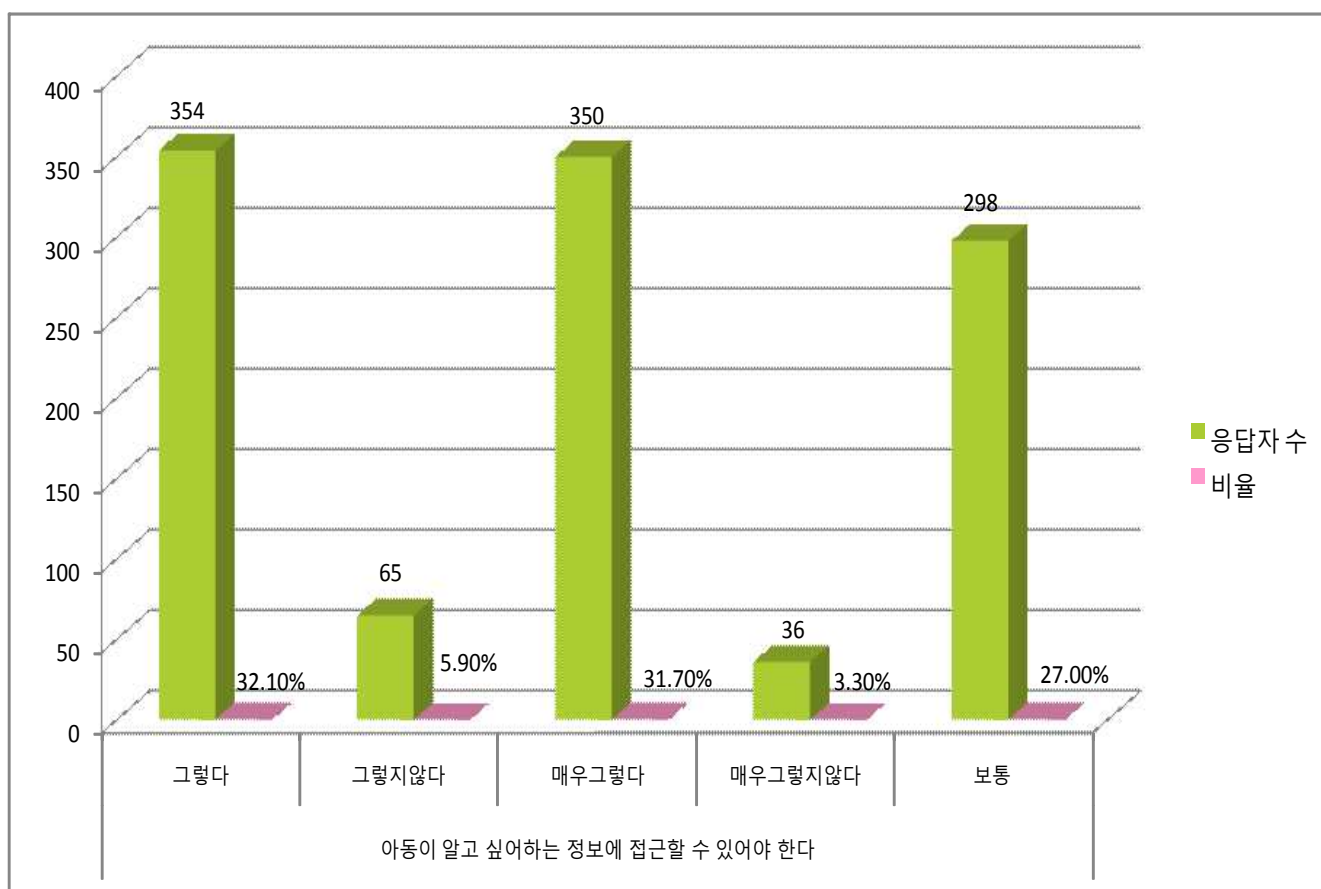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					전 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40	19	592	13	139	1103
(명, %)	30.8%	1.7%	53.7%	1.2%	12.6%	100.0%



## 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704명(63.8%)의 아동이 '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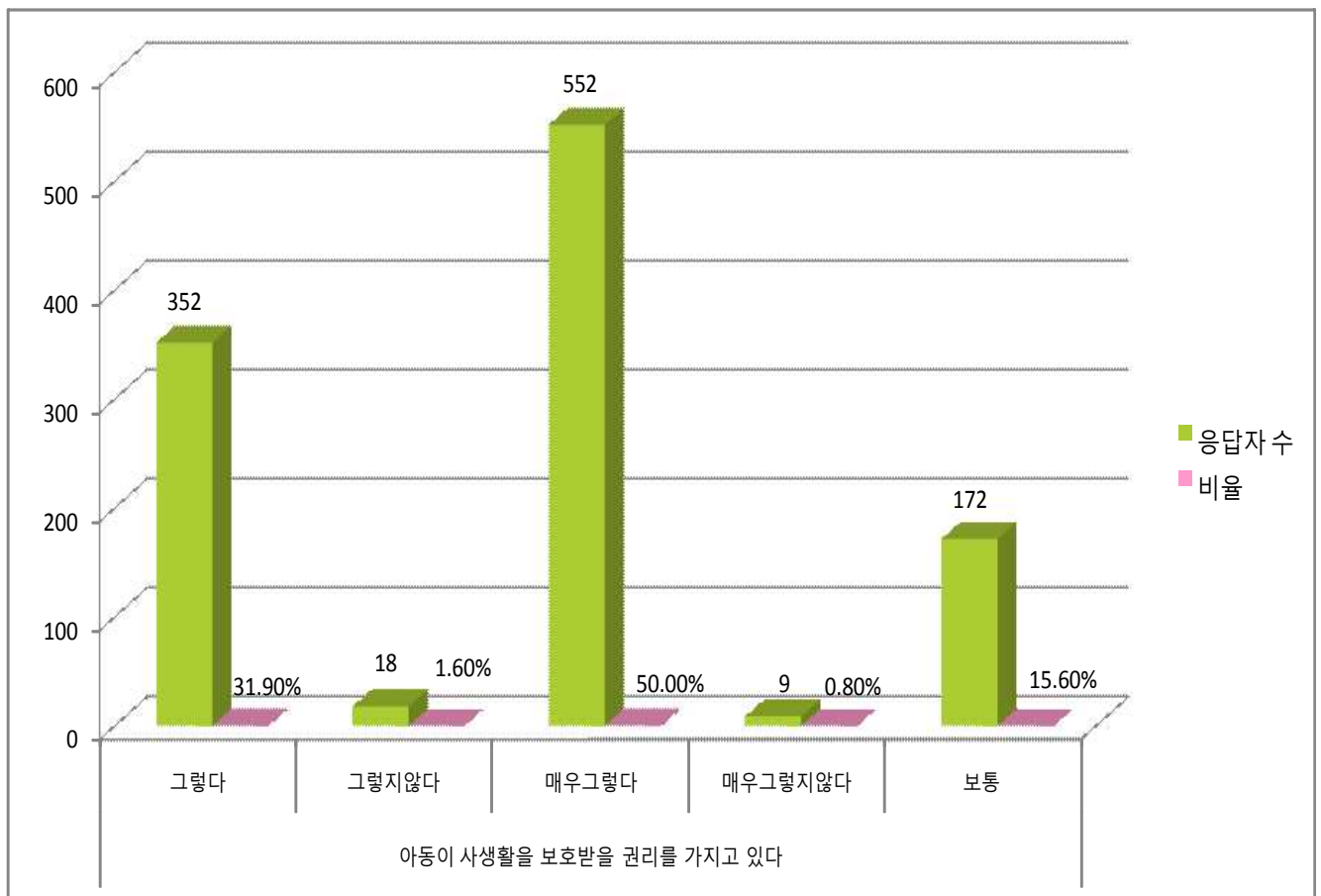
구 분	아동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54	65	350	36	298	1,103
(명, %)	32.1%	5.9%	31.7%	3.3%	27.0%	100.0%



## 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

- 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904명(81.9%)의 아동이 '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아동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	352	18	552	9	172	1,103
(명, %)	31.9%	1.6%	50.0%	0.8%	15.6%	100.0%



● **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권리**

▶ 성별, 학년별, 거주지별 응답결과 1,103명 중 784명(71.1%)의 아동이 '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'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구 분	아동의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연령 및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					전체
	그렇다	그렇지않다	매우그렇다	매우그렇지않다	보통	
응답자 수 (명, %)	366	31	418	29	259	1,103
	33.2%	2.8%	37.9%	2.6%	23.5%	100.0%

